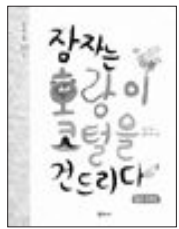


북스

어린이 책꽂이



▲장자는 호랑이 코팅을 건드리다=우리 문화 속에 담겨있는 상징과 의미를 풀어보는 '학교재 찾대 시리즈' 첫번째 권. 호랑이·개·토끼·소 등 여덟가지 동물의 생김새에 관해 전해지는 유래담과 이에 얽힌 문화적 상징성을 민화를 곁들여 풀어냈다. (학교재·9000원)



▲장난사전= 소년들을 위한 모험과 놀이 방법을 엮은 책이다.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난과 실험, 마술, 놀이, 요리 방법들을 알려준다. 수수께끼와 난센스 퀴즈, 놀라운 진기록들도 소개돼 있다. (조선books·9500원)



▲똘똘! 지식탐험대 5-인체 박사, 범인을 잡다=8편의 크고 작은 수사극을 통해 아이들이 궁금해할만한 인체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아이들이 인체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사건을 해결해가는 실 박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시공주니어·9500원)



▲멋져 버러, 세발자전거!=광주에 살며 동화를 쓰는 자전거 마니아 김남중씨의 신작동화다. 우연찮게 자전거로 전국을 여행하게 된 소년의 이야기 '불량한 자전거 여행'에 이은 또 다른 자전거 동화로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굳이 일등을 하려 하지 않는 희화하고 유쾌한 자전거 대회 이야기를 담았다. (낮은산·8800원)



▲자린고비=자복한 구두쇠였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자린고비의 일화를 엮은 그림책이다. 절약의 참미와 나눔의 미학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수록색채와 옛이야기의 느낌을 살린 인물들의 익살스런 표정이 재미있다. (웅진주니어·1만원)



▲궁궐에서 온 초대장=궁궐 캠프 초대장을 받은 초등학생 현우가 1주일 동안 궁궐에서 머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요리경연 대회, 민속놀이 대회, 탈춤경연 대회 등을 통해 친구들과 경쟁하며 그 안에서 궁궐의 가치와 전통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예림당·9000원)



▲만만찮은 두 녀석=내 말이 옳고, 네말은 그르다며 티격태격 싸워 대던 만만찮은 두 녀석, 학교 통폐합으로 같은 반이 된 민규와 병호를 통해 화해하는 방법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는 우리 사회에서 두 계층이 화합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았다. (그린북·9000원)

▲고물 할아버지와 엉뚱한 박물관=초등학생인 주인공 '동이'가 엉뚱한 '고물 할아버지'를 만나 여러 유물을 접하고 그 유물을 살피는 내용이다. 발에 거름을 주는 오줌장군, 바느질에 필요한 규중철우 등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던 실용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자료 사진도 풍부하게 실렸다. (주신원문화사·1만원)

가미가제 독고다이

김별아 지음



베스트셀러 '미실'의 작가 김별아(41·사진)씨가 "문학 인생 17년의 전기를 샅샅이"는 포부로 내놓은 신작 '가미가제 독고다이'는 제목부터 심상찮다.

비극적인 한 '모던 보이'의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한 이번 소설은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표류하는 한 인간의 삶을 작가 특유의 유머와 위트가 버무러진 문장으로 생생하게 묘사했다. 올해 2월부터 인터넷 교보문고에 연재를 시작해 독자의 주목을 받아온 이 소설은 미실, 논개, 정순왕후, 김구, 독립운동가 박열과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등 실존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전작과 달리 작가의 '진실한 삶에 육박하는 허구'에 도전하기도 하다.

경박하고 천한시대에, 광각과 배반이 횡행하는 시대에 누가 역사를 읽는다고 과거를 이야기 하나니 자문에 작가는 "아프면 아프 대로, 슬프면 슬프 대로, 패배와 절망의 기복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하며 지나간 것을 되새길 것을 제안한다. 이번 소설은 기술 방법은 전과 좀 다르지만 그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소설은 1940년대를 전후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대대로 백정이었던 집안에서 태어난 주인공 하윤식의 아버지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며 온갖 방법으로 돈을 모아 신분 '세탁'에 나선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신여성'을 아내로 맞은 것도 백정의 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였다.

소설은 한마디로 겉보기엔 화목한, 위선적인 가정에서 방탕하게 자라며 "열일곱 살에 이미 폐허를 본 인생"인 주인공 윤식의 '목숨을 건' 사랑이야기다. 시대의 아픔은 거들떠보지 않고 개인의 욕망에 충실했던 윤식은 아버지를 경멸하면서 혁명가로 돌아온 형의 여자 현옥을 만난 뒤 삶의 행로가 뒤바뀐다. 윤식은 물론, 백정 출신 홀부로서 금전적 부를 위해 친일도 서슴지 않는 아버지와 금전적 자유를 위해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

한 어머니, 그리고 가족을 부끄러워하며 '주의'의 길로 들어선 우아한 형 등으로 이루어진 울트라(?) 모던한 가족의 위선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민속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돈이나 사랑이 목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던 가미가제 조선인들의 비극적 삶을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하며 위트 있게 녹여냈다.

소설은 사실적이고 인간적이다. 존재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인 가미가제'라는 소재로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킬 뿐 아니라 아련한 청춘의 기억을 되살리는 생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허전한 삶에서 우리를 살리는 고귀한 가치'란 과언 무었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의 가장 큰 미덕은 남녀를 불문하고 시대의 격랑 속에 시달리고 흔들리면서도 어떻게 삶을 끝내 이어가지를 익살과 풍자의 문체로 활달하게 묘사했다는 데 있다.

또한 전쟁의 비극과 광기를 희극적 외양으로 감싸는 작가의 능수능란한 필치와 소설 곳곳에 마련된 크고 작은 복선과 반전을 만나느 재미도 쏠쏠하다. (해냄·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학도 인문학 등 자양분이 필요

獸性の 옹호
복거일 지음



소설가이자 시인·사회평론가로 왕성하게 활동해온 복거일(64)씨의 문학의 세계를 엿 볼 수 있는 에세이 '獸性の 옹호'가 나왔다.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 중 문학에 관한 것들을 묶은 것.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졌다. 1부 '문학에 관한 성찰'은 문학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의 본질과 문화와 언어 및 문화와 사회와의 관계를 비롯해 앞으로의 전망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2부 '작가에 대한 성찰'은 우리 사회에서 작가들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작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3부 '작품들에 대한 생각'에서는 몇몇 작품들의 비평을 통해 작품과 작가, 작품과 독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사색을 풀어 놓는다. 작가는 현시점 문학의 위기에 대해 "문학이 자신을 두른 울타리는 높고 투박성이 높다"라고 진단하며 앞으로 문학이 나아가길에 대해 "스스로 둘러친 울타리를 낮추고 다른 지적 분야(인문학, 자연과학 등)들로부터 자양을 받아들이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관된 저자의 문체의식이다.

이와 함께 세계화 시대의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보다 큰 보편성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며 "그동안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폐쇄적이었으며 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연 적이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음식 세계 알리기 지침서

비빔밥 75가지...
전지영 지음



'한식 세계화'의 대표 주자인 비빔밥이 세계적인 웰빙 푸드로 거듭나고 있다. 이미 항공사의 기내식 인기 메뉴로 자리 잡고 있고, 해외에 문을 여는 비빔밥 전문점도 늘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인 기네스 펠트로, 제시카 고메즈는 비빔밥으로 몸매 관리를 할 정도로 비빔밥에 대한 사랑이 날다르다.

청와대 비서실 영양사로 재직했으며 푸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지영씨가 비빔밥이 가진 여러 매력과 영양을 담아 소개한 '비빔밥 75가지'란 그녀의 영양, 세계인의 웰빙 푸드를 펴냈다.

책은 지역별 전통 비빔밥을 비롯해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비빔밥, 맛&맛 퓨전 비빔밥, 몸이 가벼워지는 다이어트 건강 비빔밥, 한 입에 속~ 비빔밥 도시락까지 다양한 비빔밥 레시피를 소개했다. 저자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비빔밥의 기본이 되는 밥과 나물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 비빔밥과 어울리는 국, 비빔밥 재료의 음식 궁합 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준다. 또 비빔밥의 유래와 비빔밥의 여러 가지 이름, 비빔밥 재료의 다섯 가지 색깔에 담긴 미까지 소개해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도목 했다.

요리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연구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리스컴·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품 속 음식을 분석해본다

앨리스의 식탁
손 브랜드 지음



문학 작품 속에 음식과 관련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문학을 전공한 뒤 레스토랑 비평가로 활동하는 손 브랜드의 '앨리스의 식탁'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비롯해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인 오스틴의 '에마',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등 우리에게 익숙한 문학 작품을 음식과 식사라는 키워드로 풀어본 책이다.

책은 문학 작품 속 음식이 등장하는 상황과 장면을 아침·점심·티타임·저녁, 야외에서 먹기, 아이들 음식, 특별한 상황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장면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을 갖추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또 문학적 요소(재미있음, 손에서 떨어 수 없음, 날리 워하는 고전)와 음식의 맛(먹기 힘들, 맛있음, 맹목성) 분위기(화가에, 외로움, 아주 위엄함), 모인 사람의 수(단둘, 여럿, 많음)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점도 매겼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풀어놓는 저자의 음식 이야기는 먹고, 마시고, 행복해지려는 욕구를 일깨울 수 있게 하며 평가와 함께 곁들여진 익살스러운 그림들은 문학의 색다른 재미에 눈뜨게 한다. <민음인·9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김영희
☎ 062-364-8700
H.P.010-4608-3700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용적률, 최고가,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근린시설, 임업/빌라/다세대/오피스텔, 상가주택.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용적률, 최고가. Includes sections for 토지(전/답/임야/대지), 상가임대.

Table with columns: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용적률, 최고가. Includes sections for 토지(전/답/임야/대지), 상가임대.

탑공인중개사

◎광천동신축상가임대◎

■ 건물 총 면적 : 1388㎡ (420평)
■ 총별 건물 면적 : 413㎡ (125평)
4층 : 148㎡ (45평) ※9월말 준공예정

Table with columns: 층, 면적, 권장업종, 비고. Lists 1, 2, 3, 4 floors with details on area and recommended uses.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구 송원대학 부촌) 신축상가로서 대림아파트 1096세대와 주변 기아자동차/주변세대 약 3,000세대가 활동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와 양면도로 및 양쪽 출입가능
◎ 임대문의 ◎
☎ 062) 368-0789 / H.P 010-3602-4840

아담공인중개사

서광주역부근 자연녹지

·서구 백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엔, 지름차런 렌탈식 차고지터
합평 손물 비닷가 전원주택(교환가능)
·합평 손물 월천리 안해수목장 인근 대지 및 전 14,370㎡(4,347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가능, 조양원 인근 앞에 사해바다기 펼쳐있음, 아파트와 교환가능 매기 3억
상촌동 나대지
·서구 상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정공관사 1,845㎡(558평) 제1종일반주거지, 10m진입로 매기 3.3㎡당 180만엔, 종교시설, 요양원까지
호남대(서촌)부근 자연녹지
·광산구 선일동 호남대앞 3,458㎡(1,046평)3.3㎡당 110만엔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원료, 조양원호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선일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엔, 자연녹지 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양동 대지433㎡(131평), 전입 1,994㎡(603평) 구 주택2동, 매기 1억8000만엔, 조양원호

건물구함(병원,요양원, 리모델링용)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1,000평이상
☎062-233-2222 / 010-3616-8698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넘겨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FAX)233-1772 / 011-602-2532
(전주영성 신복재, 대인동 상사2리본)